

서울아산병원

VOL.691 2022. 12. 15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내과 외래 진료실이 감염관리센터(CIC) 2층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완전한 음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감염관리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시행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전파 가능성이 있는 호흡기감염 질환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12월 5일 감염관리센터 2층에 오픈한 감염내과 외래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메뉴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푸드코트'

선택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푸드코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양지쌀국수



8,500원

나시고랭



8,500원

위치 : 동관 지하 1층

영업 시간 : 오전 7시 30분 ~ 오후 8시 30분

(양식메뉴는 오전 11시부터 운영합니다.)

※ 일요일 휴무

주요 메뉴 : 아욱된장국(6,000원), 된장찌개(7,000원),
아채비빔밥(8,000원), 해물덮밥(8,500원),
등심돈가스(9,000원), 소고기카레우동(9,000원)

신규 메뉴 : 양지쌀국수(8,500원), 나시고랭(8,500원)

사이드 메뉴 : 짜조 1pcs(1,600원), 용미하가우 5pcs(1,800원),
새우튀김 1pcs(1,600원)

문의 : 02-3010-6394

※ 외래식당가 포장 판매, 직원 10% 할인
(사원증 또는 사번 제시 후 이용 가능,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 적용)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스카이라운지 에메랄드
코스 식사권(160,000원)
김윤승(중앙공급팀)

아로마틱 핸드 워시
(50,000원 상당)
권유진(암병원간호2팀)
장영민(수술간호팀)

스카이라운지이용권(70,000원)
류재찬(영상의학과)

달마이어 이용권(10,000원)
김수남(소화기내시경팀)
오정화(외과간호2팀)
이기연(암병원간호2팀)
이영란(내과간호1팀 91유닛)
추나영(건진운영팀)

원내 식당 이용권(30,000원)
강보선(교육수련팀)
강태경(중앙공급팀)
김현숙(소화기내시경팀)
김혜정(내과간호2팀)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3년 1월 1일(일)
발표 제693호(2023년 1월 15일 발간)



“팬데믹 떨치고 행복 가득한 연말 되시길...”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올해도 어김없이 크

리스마스 트리가 병원 곳곳을 환하게 밝혔다. 끊임없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환자와 병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질병과 싸운 환자들은 반짝이는 트리 앞에서 밝은 얼굴로 사진을 찍으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했다. 암병원간호1팀 황연주 사원은 “올해는 코로나 19 등 힘든 일이 많았지만 좋은 기억만 남긴 채 새해를 맞이할 생각이다. 직원 여러분도 행복 가득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퇴근길에 병원 정문의 트리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암병원간호2팀 임지연 사원, 내과 간호2팀 신명기 사원, 암병원간호1팀 황연주 사원.

02 NEWS 협업 기능과 확장성 갖춘 '아산웍스' 오픈
11 사람 & 이야기 직접 만든 아기 옷으로 사랑 전해요

14 특별기고 짧은 만남 긴 여운, 바레인에서의 5일
18 Thank U, AMC 환자와의 약속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협업 기능과 확장성 갖춘 '아산웍스' 오픈



외과간호2팀 배수민 사원이 아산웍스를 활용하여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아산톡을 대신할 새 협업도구 '아산웍스(ASAN WORKS)'가 내년 1월 1일 도입된다. 아산웍스는 기본적인 메신저 기능 외에 ▲다자간 음성·영상 통화 ▲화상회의 ▲자료공유 ▲게시판 ▲설문 ▲메시지봇 등의 기능을 갖춘 통합 협업도구로서 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오 디지털정보혁신본부장은 "최근 협업 트렌드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협업 기능과 확장성, 안정성을 갖춘 아산웍스가 원내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산웍스는 앱 스토어(OS)와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에서 '네이버웍스'를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다.

- 메신저**
 - 다양한 콘텐츠 메시지 보내기(사진, 동영상, 파일 등)
 - 음성 및 영상 통화(최대 200명까지 동시 접속 가능)
- 화상회의**
 - 원격으로 실시간 화상 회의 진행
 - 화면 공유 및 화이트보드 기능
- 메시지봇**
 - 간단한 업무는 대화창 안에서 처리
 - 회의실 예약, 식단 알림, 모바일 사원증, 전화번호 검색
- 캘린더**
 - 동료와 일정 공유
 - 모두가 참석 가능한 회의 시간 자동 추천
- 할 일**
 - 업무 기한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할 일 생성
 - 메신저 대화 도중 할 일로 바로 등록
- 게시판**
 - 게시글 및 댓글 쓰기(사진, 동영상, 스티커 등 첨부 가능)
 - 읽은 사람 명단 확인 및 재알림
- 온라인 설문**
 - 템플릿 이용해 간편하게 설문 작성
 - 메시지로 참여 유도 및 실시간 결과 확인
- 온라인 저장 공간**
 - 파일 업로드 및 공유
 - 파일 공동 관리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 가능

2023년 전공의 모집 경쟁률 '1위'



안과 조용하·박나현·이수영 레지던트(왼쪽부터)가 116병동 안과 검사실에서 검사 결과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2023년 전공의 모집에서 우리 병원 경쟁률이 '빅4' 병원 중 가장 높았다. 필수외과 분야로 꼽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5개 진료과 지원자 수도 빅 4 병원 중 유일하게 모집 정원을 초과 달성했다.

우리 병원의 모집 정원은 23개 진료과, 123명이다. 총 168명이 지원해 1.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진료과별로는 ▲안과(3.0대 1) ▲성형외과(2.7대 1) ▲정신건강의학과(2.3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김재중 교육부원장은 "우리 병원은 좋은 교육·진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연차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의의 과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병원이 전공의들이 수련하고 싶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흉곽출구증후군 로봇수술 첫 성공



김용희 교수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팀이 흉곽출구증후군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던 홍 씨(68세, 여)를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흉곽출구증후군은 쇄골과 첫 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인 흉곽출구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돼 쇄골 아래의 신경이나 혈관을 눌러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기존에는 목 위 쇄골을 따라 10cm가량을 길게 절개해 원인이 되는 갈비뼈 부위를 잘라냈는데 과체중이거나 근육이 지나치게 많은 환자의 경우 수술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수술이 매우 좁은 공간에서 이뤄지다보니 주변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었다. 수술 후에는 감염, 부종 등 합병

증 예방을 위해 목에 배액관을 부착한 채 퇴원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사후 관리의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용희 교수팀은 홍 씨의 겨드랑이에 5mm 구멍 1개와 8mm 구멍 3개를 뚫어 로봇팔과 내시경을 넣었다. 내시경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로봇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오른쪽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던 첫 번째 갈비뼈를 잘라냈다. 미세 침습 수술인 만큼 홍 씨는 통증이나 합병증 없이 수술 후 이틀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김용희 교수는 "흉곽출구증후군 로봇수술은 병의 원인이 되는 갈비뼈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절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20~40대에서 흉곽출구증후군이 많이 생기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던 환자들이 로봇수술로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로봇 신장이식 수술 100례



신·췌장이식외과 신성 부교수(앞줄 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신장이식팀 의료진이 로봇 신장이식 수술 100례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췌장이식외과 신성 부교수팀이 로봇 신장이식 100례를 달성했다. 2020년 8월 14일 로봇 신장이식 수술을 처음 시행한 후 2년 3개월 만에 달성한 결과다. 신 부교수팀이 로봇 신장이식 수술 100례와 같은 기간 시행된 개복 신장이식 수술 690례의 임상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신장이식 후 1년째 사구체여과율이 로봇 신장이식은 분당

68.8ml, 개복 신장이식은 분당 67.6ml로 신장 기능 면에서 비슷했다. 추적관찰 기간 동안 거부반응 발생 비율은 로봇 신장이식이 12%, 개복 신장이식이 7%였으며 면역학적 위험도와 관련된 변수를 보정하면 로봇 신장이식이 개복 신장이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장이식은 정교한 미세문합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 수술이다. 로봇을 이용하면 최대 10배의 시야를 확보하고 로봇 기구의 자유로운 관절 운동을 통해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개복 신장이식에서는 약 20cm의 절개창이 필요했지만 로봇 신장이식에서는 신장이 들어갈 수 있는 6cm가량의 절개창과 배꼽 주변으로 1cm 안팎의 작은 구멍 3개만 있으면 수술이 가능하다. 절개창이 작기 때문에 수술 부위 감염 또는 탈장 합병증도 적다. 복강 내 수술 범위도 축소돼 수술 중 출혈량이 줄어들고 수술 배액관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회복이 빨라 개복 신장이식에 비해 2~3일 일찍 퇴원할 수 있다. 신 부교수는 "로봇 신장이식의 장점을 활용해 많은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해상도 생체현미경 영상 기술 개발



김준기 조교수



김성훈 부교수

전임상시험에서는 소동물의 살아있는 조직과 세포를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생체현미경 영상이 많이 활용되는데 영상이 선명할수록 각종 진단과 치료법 평가가 고도화될 수 있다. 융합의학과 김준기 조교수,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부교수팀은 진정효과가 있는 텍스메데토미딘 약물을 소동물에 주입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생체현미경으로 고품질의 형광 생체 조직 영상을 획득하는데 최근 성공했다.

마취 상태에서도 소동물은 호흡과 폐순환을 이어가므로 영상을 얻으려는 조직 내에 비자발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구팀은 이광자 여기 현미경과 텍스메데토미딘 약물을 이용해 소동물의 형광 생체 조직 영상을 획득한 후 연구를 진행했다. 이광자 여기 현미경은 생체현미경 중에서도 고사양으로 기존 생체현미경에서 발생하는 광표백이나 광손상 현상을 해결했다. 텍스메데토미딘 약물 주입은 기존 방법에 비해 덜 침습적이면서 비교적 간단하게 소동물의 호흡과 같은 비자발적 움직임을 감소시킨다. 소동물에게 텍스메데토미딘을 주입하기 전과 후에 생체 내 이광자 형광 현미경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 약물 주입 후에는 소동물의 호흡이나 심장 움직임이 안정화되면서 형광 이미지와 동영상의 해상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텍스메데토미딘 효과로 조직 내 혈류 속도가 감소한 모습도 관찰됐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현미경 분야 저명 학술지 「마이크로스코피 앤 마이크로애널리시스」 최신호에 게재됨과 동시에 약물 진정효과로 얻은 고품질의 형광 생체 조직 영상이 표지로 채택됐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현미경 분야 저명 학술지 「마이크로스코피 앤 마이크로애널리시스」 최신호에 게재됨과 동시에 약물 진정효과로 얻은 고품질의 형광 생체 조직 영상이 표지로 채택됐다.

부정맥 환자 마이크로 시술 100례



심장내과 차명진 조교수가 부정맥 환자의 다리혈관을 통해 초소형 무선 심박동기 마이크로를 심장 우심실에 삽입하고 있다.

심장병원 부정맥팀(심장내과 최기준·남기병·김준 교수, 조민수 부교수, 차명진 조교수)이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 박동기 시술 100례를 달성했다.

마이크라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환자의 심

장 내부에 삽입하는 2.6cm 크기의 초소형 무선극성 심박동기이다. 대퇴부를 통해 카테터를 집어넣어 심장 우심실에 마이크로를 배치하는데 본체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고 피부 절개나 전선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적다. 기존의 인공 심박동기가 쇄골 아래 피부에 삽입돼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생활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부정맥팀이 2021년 2월부터 최근까지 시행한 마이크로 박동기 삽입술 100례를 살펴보면 환자의 평균 나이는 72세였으며 80세 이상의 환자 31명도 포함됐다. 시술 후 박동기 위치가 변경되거나 제거·재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평균 시술 시간은 30분 미만으로 기존보다 50% 이상 단축됐다. 박동기 삽입 부위에 감염이 생기거나 본체·전선에 문제가 생겨 심장 박동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이 기존 심박동기를 마이크로 박동기로 교체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획득



11월 8일 열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현판식에서 박승일 병원장, 류민희 임상연구심의위원장(왼쪽 네 번째,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가 11월 8일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 40개 기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획득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5년 11월 7일까지로 3년간 유효하다. 류민희 임상연구심의위원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우리 병원 임상연구의 수준과 신뢰성을 국내·외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증에 부합하는 임상연구 심의 활동으로 연구대상자의 안전, 복지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 안보 노하우 배우러 왔습니다”



11월 30일 우리 병원을 방문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GHSA) 대표단이 이제한 진료부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우리 병원 경영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베라 감염관리 총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티모시 부처 생화학무기 대응 총괄 등 GHSA 방문단 16명은 이제한 진료부원장, 김성한 감염관리실장을 만나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11월 29일에는 인도네시아 실로암병원 대표단이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실로암병원은 인도네시아 30개 도시와 21개 지역에 총 41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병원이다. 실로암병원의 그레이스 프렐리타 인드라자자 총괄병원장, 아낭 프라유디 재정담당 대표 등 방문단 7명은 전인호 국제사업실장으로부터 우리 병원에 대한 소개를 듣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국제진료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견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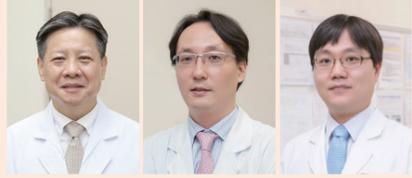
12월 12일에는 태국 사미티벳병원 경영진이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사미티벳병원은 1979년 개원해 태국에 7곳, 미얀마에 1곳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미티벳병원의 처렛 판투람 포른 CEO, 수라퐁 룡하누만자오 비즈니스개발 및 프로젝트 실장 등 방문단 6명은 어린이병원 외래와 소아응급실, 신생아중환자실을 둘러본 후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따른 병원 운영 전략, 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GHSA) 대표단이 11월 30일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GHSA는 사스(SARS), 메르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생물테러 등 국가 보건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14년 출범한 국제 협의체다. 이번 방문은 서울에서 열린 GHSA 장관급 회의 참석자들이 감염관리센터(CIC)를 둘러보고 감염병응급실, 음압수술실 등 시설 운영 노하우를 듣고자 마련됐다.

라이베리아 빌헤미나 잘라 보건복지부장관, 짐바브웨 존 차문로와 망귀로 보건복지부차관, 에티오피아 이헤뉴 이어도우

동정

임영석·박도현 교수, 김성훈 부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우리 병원 의료진이 11월 30일 열린 2022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는 스마트 임상시험 기반 기술 및 시스템을 새롭게 제시하고 국내 임상시험 수행 환경 전반을 개선해 글로벌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연구부문 표창을 받았다. 소화기내과 박도현 교수는 소화기 스텐트를 개발해 신의료기술 선정에 기여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제품의 매출 증대 및 수입 대체에 기여한 공로로,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부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환자 모니터링 장비를 개발하고 병원 중심 기술사업화와 의료기기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우수개발부문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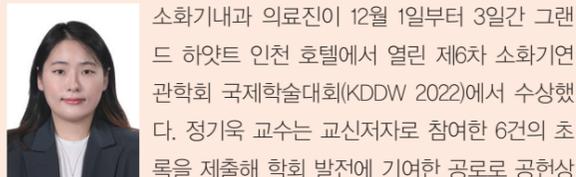
내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정기욱 교수 권민관 조교수 김유리 진료전임강사 김규원 진료전임강사



박광범 임상강사 양지원 임상강사 박정빈 임상강사 서정국 임상강사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12월 1일부터 3일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소화기연관학회 국제학술대회(KDDW 2022)에서 수상했다. 정기욱 교수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6건의 초록을 제출해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헌상 박수비 임상강사를 받았다. 내과 권민관 조교수는 '결장절제술을 받지 않은 한국인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환자의 예후'를 주제로 KGFD 학술상을, 김유리 진료전임강사는 '식도암 환자에서 경피적 위루관과 식도 스텐트 삽입술 시행에 따른 임상적 특징 및 예후에 관한 비교'를 주제로 우수 포스터상을, 김규원 진료전임강사는 '만성 대장 가성폐쇄 환자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에

대한 메타지놈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로 KGFD 학술상을, 박광범 임상강사는 '호산구성 식도염 치료 반응 판정을 위한 최적의 내시경 점수'라는 주제로 최우수포스터상을, 양지원 임상강사는 '대기 등록된 우리나라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의 MELD 3.0의 효용성'을 주제로 KGFD 학술상을, 박정빈 임상강사는 '코로나병 환자에서 회장루의 분변 칼프로텍틴 측정을 활용한 질병 모니터링 및 재발 평가'를 주제로 우수포스터상을, 서정국 임상강사는 '항 TNF 제제를 사용 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5-ASA 약제 중단의 임상적 영향: 한국의 전국 인구 기반 연구'를 주제로 KGFD 학술상을, 박수비 임상강사는 '아칼라지아의 자연경과'라는 주제로 최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박광범 임상강사는 '인공지능 보조 초음파내시경을 이용한 위 상피 하 종양의 감별'이라는 주제의 연구로 대한소화기학회 연구비 지원대상에도 선정됐다.

고경남 교수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



소아청소년과 고경남 교수가 제8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대상에 선정된 고 교수의 작품 '마지막 손길'은 암투병 중인 한 소녀가 친오빠를 원수처럼 미워하면서도 오빠의 결혼식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항암치료를 결심하고 자신의 죽음을 지연시키는 과정을 절제된 문장으로 형상화해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호석 교수, 양민규 조교수 우수구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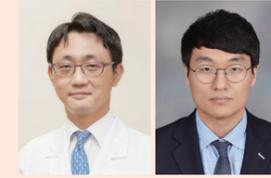
안과 사호석 교수, 양민규 조교수가 10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 그랜드 워커히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제128회 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사 교수와 양 조교수는 '한국인 눈꺼플 피지샘암의 국소 재발, 전이 및 환자 생존과 관련된 예후 인자'를 주제로 발표해 이 상을 받았다.

이준엽 부교수, 김수진 연구원 최우수포스터상



안과 이준엽 부교수, 김수진 연구원이 11월 24일부터 3일간 열린 한국혈관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이 부교수와 김 연구원은 '망막 맥락막 혈관세포의 이질성 및 기능과의 관련성'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이동호 교수·조성탄 임상강사 북미경추연구학회 대상



정형외과 이동호 교수·조성탄 임상강사팀이 11월 16일부터 4일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제50회 북미경추연구학회에서 임상연구 논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매년 북미에서 개최되는 경추연구학회는 경추 질환 연구 및 치료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권위 있는 학회다. 이 교수·조 임상강사팀은 '경추 척수증 환자에서 경추체 전방 전위 절골술의 장기 추시 결과'를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경추체 전방 전위 절골술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입증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 상을 받았다. 이 교수팀은 이번 학회에서 경추체 전방 전위 절골술뿐만 아니라 경추 전방 디스크 절제술 및 유합술, 경추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 여러 시술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소영 임상강사 우수구연상



산부인과 이소영 임상강사가 11월 20일 열린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에서 이사라 교수가 시행한 새로운 수술 접근법인 '싱글포트 로봇 최소절개(1+1 절개) 멀티로봇을 이용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근종절제술과 지공적출술'을 주제로 발표해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김수현 임상강사 젊은 연구자상



소아청소년과 김수현 임상강사가 10월 21일 열린 제29차 대한신생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받았다. 김 임상강사는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있는 소아의 성장 지표 및 성장 지연의 위험 요인'을 주제로 발표해 이 상을 받았다.

인사

보직임명

Table with columns for department (e.g., 영상의학과, 안과, 정형외과), position (e.g., 교수, 실장), and name (e.g., 김정곤, 이주용, 김지완).

Table with columns for department (e.g.,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안과), position (e.g., 교수, 실장), and name (e.g., 김정곤, 이주용, 김지완).

- 이상 46명, 2023. 1. 1부.

이노베이션 챌린지



박승일 병원장(왼쪽 첫 번째)을 비롯한 경영진이 이노베이션 챌린지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IDC)가 12월 8일 동관 전시실 및 소강당에서 '찾아가는 이노베이션, 실현되는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으며 지난 10년간 진행해 온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 중 환자과 보호자, 직원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수술 전 불안감 감소 프로젝트 ▲감염 제로 프로젝트 ▲업무 자동화 프로젝트 등의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우리 병원 직원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 적용 사례를 전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PI활동 결과보고회



PI활동 결과보고회에서 수상자들과 경영진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해 동안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PI활동 결과보고회'가 12월 12일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는 온라인으로 동시 중계됐다.

PI활동 우수주제 구연 발표를 진행한 결과 대상은 어린이병원간호팀·소아청소년과의 '어린이병원 임상알람관리 개선 활동'에 돌아갔다. 이밖에 금상 2팀, 은상 3팀, 동상 6팀, 장려상 8팀이 수상했다.

우수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정성문 PIS장장이 2022년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목표 진행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자원봉사자 퇴임식



12월 5일 퇴임한 자원봉사자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정년퇴임식이 12월 5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엔 퇴임하는 자원봉사자는 총 13명으로 동료 봉사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장과 꽃다발을 받았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2,898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친 조상채 자원봉사자는 퇴임 봉사자들을 대표해 "긴 세월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회는 퇴임식에서 봉사자들이 한 해 동안 모은 성금을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해외의학자들에게 내시경초음파 기술 전수



소화기내과 서동완 교수(가운데)가 국제 내시경초음파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내시경초음파 술기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소화기내과 서동완·송태준 교수, 오동욱 부교수팀은 내시경 초음파 기술 노하우를 전 세계 젊은 의학자들에게 전수하는 국제 내시경초음파 교육 프로그램(WISE, WEO International School of EUS)을 최근 진행했다.

2018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31개국, 89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년 동안 진행된 기초·초급·중급·고급·중재시술의 5단계 교육과정을 통해 내시경초음파 술기 노하우를 전수받아 각 나라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단신

아산·세브란스 폐고혈압 공동 심포지엄

제2회 아산·세브란스 폐고혈압 공동 심포지엄이 12월 10일 동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제1회 심포지엄은 폐이식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고, 올해는 '만성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 폐동맥고혈압(PAH)'을 주제로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만성혈전색전성 폐고혈압의 최신지견 ▲폐동맥고혈압의 최신지견 ▲코로나19와 관련된 혈전증 및 폐고혈압 증례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중개의과학연구원 심포지엄

의생명연구소 중개의과학연구원 심포지엄이 12월 9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의료진 및 연구자 80여 명이 참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면역학적 교훈 ▲루푸스신염에서 면역세포와 비면역세포의 상호작용 ▲암 유전체학의 발전 ▲신경발달장애의 유전적 구조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조유숙 의생명연구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신규 의료기술 및 신약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신규 후원자

(주)논픽션	100,000,000원	이경남	1,000,000원
(주)밝은누리	10,000,000원	이보희	10,000,000원
(주)엔재타	34,000,000원	이재영	300,000원
(주)준바이오랩	1,000,000원	장현중	1,000,000원
(주)중원인더스트리	100,000,000원	차태현	30,000,000원
기와집 순두부	100,000,000원	최이슬	3,650,000원
노스피크 유저 클럽	10,000,000원		
대신타이낸셜그룹	500,000,000원		
사회복지법인 대덕복지재단	100,000,000원		
서울아산병원 제2어린이집	2,364,000원		
세계패션그룹한국협회	10,000,000원		
우리이앤엘(주)	100,000,000원		
울산의대 9기 동문회	30,000,000원		
김태호	1,000,000원		
김형수	1,250,000원		
김효곤	200,000원		
문대원	100,000,000원		
박진영	200,000원		

- 2022년 11월 30일 기준. 단체·개인별 가나다 순

2022년 누계액(11월까지) : 14,100,936,241원

모아사랑 후원 현황

'모아사랑'은 직원들이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달 자신의 급여 끝전을 후원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기준 우리 병원 직원 2,537명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377,260,107원이 모아졌으며 이중 839,183,182원이 사용됐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Zoom in]



대신타이낸셜 그룹이 어린이 병원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발전을 위해 최근 5억 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중증 환자 치료 지원과 희귀질환 및 희귀암 연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신타이낸셜그룹은 지난해에도 이문동이 치료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후원한 바 있다. 사진은 이어룡 대신타이낸셜그룹 회장(오른쪽)과 박승일 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유닛 (원내 6207)

글로벌 인재 육성과정 나눔활동



12월 13일 글로벌 인재 육성과정 나눔활동 우수직원 선발 평가회에서 수상자들이 경영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 글로벌 인재 육성과정 나눔활동 우수직원 선발 평가회가 12월 13일 열렸다. 지난 2년간 글로벌 인재 육성과정을 수료한 외래·입원·검사 파트의 직원들이 학습내용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 관련 업무를 개선시킨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심사단의 평가 결과 수술간호팀 김혜진 대리(신관마취회복 유닛)는 '당일수술센터 다국어 자료 제작, 나눔교육 및 AMIS 등재', 어린이병원간호팀 서민정 주임(PER 유닛)은 '소아응급센터 외국인환자 응대 매뉴얼 제작 및 나눔교육'에 대한 발표로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건진운영팀 강지혜 대리, 이해영 과장(헬스케어 유닛), 중환자간호팀 송현승 대리는 참가상을 받았다.

서울국제유아교육전에서 안전 응급처치 교육



어린이병원간호팀 직원들이 방문객에게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어린이병원간호팀 직원들이 11월 17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에 참여해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의 아기 사랑' 부스를 운영했다. 어린이병원간호팀 간호사 12명은 부스를 찾은 방문객 300여 명을 대상으로 ▲낙상, 화상, 이물삼킴 등 영유아 안전사고 관리 ▲신생아 목욕, 기저귀 교환, 수유시 주의할 점 등 아기 돌보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소아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아기 트림 시키기 등 영유아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받았다.

꽃사모 전시



12월 6일 내원객들이 '꽃사모' 회원들의 꽃꽂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원내 동호회 '꽃을 사랑하는 직원들의 모임(꽃사모)'이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동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코로나 19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전시에는 꽃사모 회장을 맡고 있는 피부과 이미우 교수 등 직원 25명이 참여했다. 내원객들은 꽃꽂이 사진을 찍고 꽃향기도 맡으며 전시를 즐겼다. 전시를 관람한 한 내원객은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아름다운 꽃 구경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작품을 감상하며 꽃사모 회원들의 수준 높은 꽃꽂이 실력에 감탄했다"라고 말했다.

직접 만든 아기 옷으로 사랑 전해요

뉴스매거진 독자엽서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들에게 직접 옷을 만들어 선물하는 직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주인공인 **어린이병원간호팀 박미정 주임**을 만났다. <편집실>



리 아이를 생각해 정성껏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대부분의 신생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떨어져 인큐베이터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퇴원하거나 일반 병실로 이동할 때 보호자들은 지금껏 해보지 않은 육아와 병간호를 동시에 시작하게 된다. 걱정을 안은 채 면회 온 부모들은 환자복이 아니라 예쁜 옷을 입은 아이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곤 한다. "아이 걱정을 조금은 덜었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라는 이야기를 부모들로부터 듣는다.

옷을 직접 만들게 된 계기는

집을 좋아하는 '집순이'라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재봉틀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무얼 만들지 고민하던 중 내가 일하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환아들이 쓸 수 있는 걸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엔 모자를 만들었다.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뒤에도 체온을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제일 만들기 쉬운 게 모자였다(웃음).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금세 모자가 작아져 못 쓰게 되더라. 그래서 모자 대신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퇴원할 때 부모님이 옷을 챙겨 오지만 아이들이 입을 수 없을 정도로 클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몇 개월을 꾸준히 만들다 보니 재봉틀 사용이 제법 익숙해져 이젠 신생아용보다 더 큰 옷도 만들 수 있게 됐다. 요즘엔 병동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치마, 조끼 등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한다.

환아 부모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처음 만든 모자를 선물 받은 아이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 "아이들 돌보느라 바쁠 텐데 쉬는 시간에도 우

주변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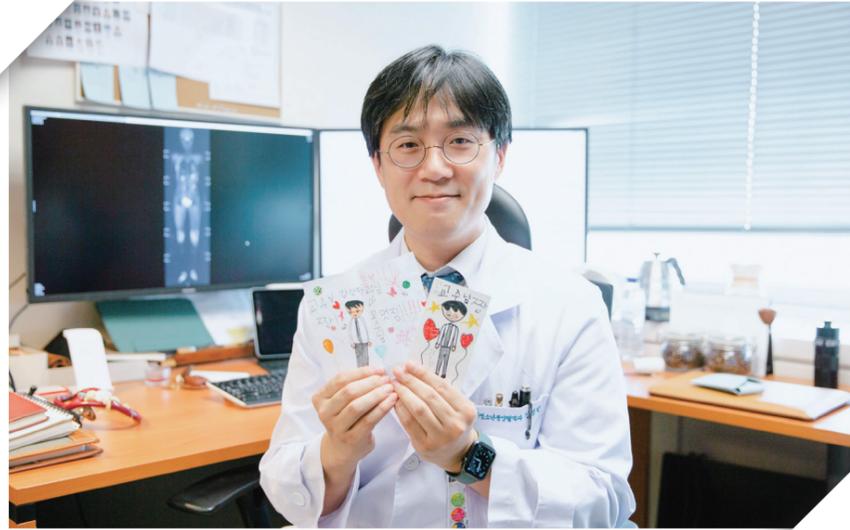
내가 만든 옷을 통해 환아 가족들이 위안을 얻고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과 환아 가족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데 내가 만든 옷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큰 보람을 느꼈다. 아이들이 그저 한 명의 환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참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딸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함께 일하는 중환자실 동료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환아 부모가 면회를 오는 날, 새로 만든 옷을 아이에게 선물한 뒤 동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바쁜 업무 때문에 지칠 때도 많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게 즐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서툰 솜씨이긴 하지만 취미를 통해 환아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신생아중환자실을 거쳐 퇴원하거나 일반 병실로 가는 아이들 모두 빨리 나아서 부모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의사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강성한 조교수

첫 진단을 내릴 때마다 강성한 조교수는 이야기한다.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기회는 충분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이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강도 높은 치료가 이어지는데 완치율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보다 떨어진다. 강 조교수는 긴 입원 생활과 반복되는 위험 상황에서 환자와 부모를 이끌고 가야 한다. 때론 임종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의 인생이라는 퍼즐에서 한 조각을 맡았다고 생각해요. 그림의 빈 곳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위기를 함께 넘으며 열여덟 살에 오토바이 사고로 친구를 잃었다. 큰 충격과 함께 죽음에 관한 질문이 찾아왔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고민하면서 의대에 진학했다. 처음엔 의대 공부가 외당지 않아 방황하기도 했다. 인턴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의 재미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었다. “잘 치료되어서 환자가 일상과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먼 훗날 죽기 전에 제가 치료한 환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했죠.” 강 조교수는 항암과 골수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치료 결정을 내리고 진행한다. 뚜렷하게 입증된 신약이나 표적 치료법이 별로 없는 분야다 보니 매일같이 환자들의 위기 상황을 함께 넘는다. 그 과정에서 ‘올보 의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장기간 만난 아이들이라 모두 각별하게 느껴져요.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제 기분도

오르락내리락하죠. 이성과 감성을 유연하게 오가야 하는 일인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가 응급실에 온 적이 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증상으로 첫째 아이를 잃었던 부모는 지방에서부터 황급히 달려왔다. 검사 결과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었다. 계속 열이 나고 간 기능과 모든 수치가 떨어졌다.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에 집중했다. 아이는 매일의 위기를 넘기고 항암 치료와 이식까지 무사히 견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실 제가 하는 치료 결정이나 처방은 대부분입니다. 주사나 약을 조절하고 멸균처치를 하는 단계마다 모든 의료진이 안전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죠. 그건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노력이라고 봐요.”

부모의 마음이 담긴 치료 강 조교수는 하루 두 번 병동을 찾는다. 치료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환아들과 보내는 시간이다. “어느 병원이든 해줄 수 있는 치료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는 걸 거예요. 아이들에게 충분히 집중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회진 때는 아이들의 우울감이나 정서적인 어려움도 주의해서 살핀다. 그 때문인지 환아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다가와 마음을 터놓는다. 병원에 오는 걸 죽기만큼 싫어하던 아이가 병원에 오는 날만 기다린다는 부모의 제보도 종종 듣는다. “네 자녀를 키우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아이들을 바라봐야 이해와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또래와 나눌만한 일상적인 대화나 농담부터 쌓아야 꿈과 고민을 나누는 관계가 되고 치료 과정과 임종에 관한 다소 부담스러운 주제도 다룰 수 있어요.” 틈틈이 내는 시간과 노력은 치료를 위한 예열 과정인 셈이다. “제 셋째 아이도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느끼는 미안한 감정과 속상한 경험들이 환아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까지 돌보는 완화의료 태어나서부터 백혈병과 폐 이식, 림프종 등으로 15년간 치료받아온 환아를 몇 달 전에 떠나보냈다. 급속히 악화되는 바람에 이별을 준비할 새가 없었다. 환아의 부모도 한동안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치료 측면에서 더 해줄 건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돌봐주지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운 거죠. 어린아이의 임종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꼭 필요한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신설된 소아 완화의료팀에서 강 조교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아이들의 정서적인 지지를 돕고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의료 결정이나 치료 상담 등의 필요한 도움을 찾아 제공한다. 말기 환자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간의 병원 생활로 사회적인 경험이 다소 부족한 환아들에게 일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놀이 치료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이 임종 후 환아 가족에게도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곧 중증 소아 재택의료팀도 출범할 계획입니다. 언젠가 데이케어센터처럼 중증 환아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공간도 만들고 싶어요.”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짧은 만남 긴 여운, 바레인에서의 5일



안과 사호석 교수

안과 사호석 교수가 바레인 보건부가 주관한 '2022년 해외 방문의사 프로그램'에 초청돼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 위치한 살마니아병원에서 진료와 수술, 강의를 하고 돌아왔다. 해외 의료분야 교류에 관심있는 의료진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사 교수의 해외 방문의사 프로그램 참여 후기를 소개한다. <편집실>

바레인, 새로운 도전

"아니, 환자 본다고 출장을 가는 것인데, 왜 대사님을 만납니까?" 가볍게 생각한 일이었는데, 뭔가 일이 커지는 느낌적인 느낌이다. 처음 가보는 나라 구경도 좀 하고, 외국 환자들 수술도 좀 해보고 오자 생각한 일 이었는데 주 바레인 한국 대사님이 왜 오찬을 같이 하시자는 것인지...

여는 때와 다름없이 원내 메일을 확인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중에 조금 특이한 이메일을 확인한 것은 대략 6개월 전이었다. 바레인 보건부에서 성형안과 의료인의 방문을 희망하니 관심이 있으면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무슨 의료 선교 같은 것인가? 바레인은 도대체 어디지?' 알고 보니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의 작은 섬나라인 바레인에는 현재 성형안과 의료진이 부족해 해외 의사를 단기간 초빙해 환자 진료와 교육을 의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바레인 보건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그리고 우리 병원 국제교류팀이 협력하여 방문의사 프로그램 참가를 추진 중이었다. 평소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만으로도 벅차고 수술도 밀려 있는데 괜한 추가 업무를 만들지 말자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며칠 동안 계속 머리 속에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맴돌았다. '아마 뭔가 해결이 안된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좋은 일 좀 해볼까?' 결국 우리 병원 진료를 조금 조정하고 추가 진료를 해서라도 바레인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기로 결정하고 지원서와 이력서를 보냈다.

두세 달이 지나서 바레인 보건부 측으로부터 공식 초청 문서를 받았다. 국제교류팀의 도움을 받아서 11월 초에 방문하기로 일정을 정하고 해외 출장 절차를 밟았다. 바레인 측 병원 안과 과장님도 소개받아서 SNS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바레인 측에서 원하는 대략적인 수술 리스트, 내가 필요로 하는 수술에 쓰일 기구 및 장비들에 대해서 꾸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준비했다. 수술기구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현지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일부 소모품은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구해서 가지고 가기로 했다. 준비 과정 하나하나에 국제 교류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 두바이를 경유해서 10월 30일 일요일에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 도착했다. 바레인은 인구 170만 명, 제주도의 1/3 크기의 중동의 유일한 섬나라이자 가장 작은 나라다. 요르단과 함께 유이하게 술이나 돼지고기 등도 판매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도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되는 나라여서 그런지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중동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인 느낌이었다. 호텔에 체크인 후 바로 정해관 주 바레인 대사님을 뵈러 한국 식당에 갔다. 정 대사님과 이장훈 연구원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바레인 현지 사정, 한국과의 관계, 역사적 배경까지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한국과 한국 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제고되면서 다양한 민간 의료 교류의 수요가 커지고 있고 대사님도 그러한 의료 교류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방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격려도 해주셨다. 연구원님이 덧붙인 설명으로는 바레인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나라의 보험 제도가 좋은 모델이 되었고 정부 차원의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바레인 국립 병원에 해외 의사가 파견나와서 단기 간 진료를 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인접 중동 국가나 유럽에서 온 경우였는데, 한국 의료진이 국립 병원에 파견 나온 것은 첫 번째 사례라고 하니 맛있게 먹던 밥이 갑자기 잘 안 넘어간다.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조금 더 많은 의료진이 바레인과의 의료 교류에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우리 병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책임져야 할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었다.

진료·수술·강의... "12시간도 모자라"

도착 다음날 아침 일찍 바레인에서 가장 큰 국립병원인 살마니아병원으로 향했다. 첫날은 외래 진료를 하고, 그 후 3일 동안 수술을 하는 일정이었다. 병원에 도착해 안과 스텝들과 상견례를 하고 아침 컨퍼런스 시간에 안과 교수, 전임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강의를 했다. 안과수술에 대한 우리 병원의 다양한 케이스들과 수술적 접근 방법들을 소개하고 3D 프린팅을 이용한 안과재건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흔히 접할 수 없는 주제의 강의여서인지 많은 질문을 받게 되어 감사했다. 간단히 안과 외래를 둘러보고 바로 외래 진료를 시행했다. 내 방문에 맞춰서 많은 환자들을 모아 놓았고 필요한 검사도 적절히 시행한 케이스가 많았다. 우리 병원에서 종일 진료하는 환자 수의 60% 정도를 보았는데 모두 신환이고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며 내 외래를 지원해주는 스텝들도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 사람들이라 보니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진료와 수술을 옆에서 도와준 안과 전임의 마이탐(가운데), 알리(오른쪽)와 함께.



살마니아병원 안과 의료진과의 저녁식사.



내시경을 이용한 눈물길수술을 하고 있는 사호석 교수(왼쪽).

감안했을 때 조금 무리가 되는 수술 일정이었지만 뻥히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수술 스케줄에 당황스러워하는 바레인 의사들의 표정을 가볍게 외면해주고 간만에 체력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다독이면서 수술을 확정했다. 수술은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서 대개 저녁 7시까지 진행됐고 점심은 수술장 의사 라운지에서 아랍식(?) 도시락을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 시행한 수술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안검하수교정술, 위/아래 눈꺼풀성형술, 눈꺼풀속말림/겉말림과 같은 국소마취 수술부터, 내시경 눈물길수술, 안와종양제거술, 안구출제술, 안구돌출 교정 안와감압술 등과 같은 전신마취의 큰 수술들까지 필요한 수술은 모두 시행했다. 수술이 하나 끝날 때마다 수술 후 처방과 관리 계획을 꼼꼼히 적어서 전공의들에게 전달했다. 수술과 수술 사이 비는 시간에 따로 쉴 만한 공간이 없는 것이 조금 불편했는데, 대신 수술장에 계속 머물다보니 그 곳 안과의들 뿐만 아니라 마취의, 성형외과의, 이비인후과의, 간호사, 그리고 청소해주는 아저씨와도 어울릴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빨리 적응하고 편해질 수 있었다. 동양인 의사가 와서 일하는 것이 신기한지 다짜고짜 사진을 찍자는 의사들도 있어서 나도 신기하고 재미 있었다. 손가락 'K하트'는 역시나 사진 찍는 사람들의 표정을 밝게 하는데 실패한 적이 없었고 한국의 국민 스포츠가 야구, 축구, 그리고 '오징어게임'이라는 다소 어이없는 레퍼토리는 바레인에서도 먹히는 농담이었다.

수술장에 와있는 안과 의사들이 아직 체력이 고갈되기 전인 오전 시간에는 수술 턴오버 시간을 이용해서 준비해 간 자료를 이용해서 짧은 강의도 4번 시행했다. 특히 한국의 눈 성형 수술 및 시술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아이유와 손예진의 안부를 묻는 젊은 의사들이 농담에도 친절히 대답해주며 더 가까워졌다. “응, 개네 잘 지내. 예진이는 결혼 후에 연락이 좀 뜸하긴 하고...” 하루

걸렸다. 그래도 외래 보조로 들어온 안과 전임의·전공의들이 매우 헌신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영어가 가능한 환자들은 직접 소통하고, 그 외의 환자들은 바레인 의사들이 영어와 아랍어를 통역해주는 식으로 진행했다. 중간 중간에 외래에 있는 시술실에 가서 시술도 병행했는데, 특히 3일 동안 수술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의 경우는 외래 시술실에서 시행했다. 바레인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인 비교적 잘 사는 나라지만, 빈부격차가 있어서인지 혹은 성형안과 의사가 없어서인지 질병이 만성화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외래 진료 후 바레인 의사들과 의논해 수술할 환자들을 확정했는데, 수술을 하기로 한 3일간 21개의 케이스를 하기로 정했다. 대부분의 성형안과 수술이 최소 1시간, 길게는 2~3시간 걸리는 것을



안검하수교정 및 눈꺼풀성형술을 하고 있는 사호석 교수(오른쪽).

12시간씩 강행군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환자, 보호자들이 수술 끝나고 만나면 어눌한 발음으로 “아산!”이라고 외치며 ‘엄지척’을 해줄 때마다 체력이 급속 충전되는 것 같아 즐겁고 보람이 있었다. 우리 안과, 우리 병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웬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과대망상에 시달리면서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시간이었다. 바레인 안과 전임의, 전공의들의 도움도 참 인상적이었다. 바레인은 대개 오후 2~3시면 모든 업무가 종료되고 이는 병원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내가 근무한 4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짜증이 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웠다. 현지 의료진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비교적 많은 수술들을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스러웠다.

의술로 이어지는 인연

이번 바레인 방문의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살마니아병원 마리암 알모센 안과장님은 나와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좋으셔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바레인 방문 중에 안과 교수님들, 전임의들, 전공의들과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도 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다들 친절하고 호기심도 많은 사람들이어서 즐거운 대화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타 파트 전임의지만 내 방문기간 동안 나의 펠로우처럼 늘 보조해 준 의사 마이탐은 서로 ‘브라더’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우정을 나눈 고마운 친구이다. 나중에는 한국에서 펠로우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생겨서 우리 병원의 해외의학자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주기도 했다. 마지막 출국하는 날에는 마리암 과장과 각막 파트의 가다 교수님께서 오전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바레인의 유적지와 활기 넘치는 시장도 잠깐 가보고 현대건설이 만들었다는 바레인 국립박물관도 가볼 기회가 있었다. 중동의 작은 나라이고 정치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간섭도 적지 않게 받는 나라이지만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정이 많다는 점에서 웬지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젊은 의사들은 해외에서 펠로우십을 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이는데, 과거에는 영국과 유럽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에도 적지 않게 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문화와 의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어서 향후 의료 분야의 인적 교류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레인 의료인 연수 경험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익숙한 공간에서 늘 환자를 보면서 잊고 지냈지만 우리 병원의 높은 의료 수준과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조금 더 많은 의료진이 해외 파견을 통해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우리 병원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됐다. 글솜씨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바람을 담아 이 글도 쓰게 됐다. 끝으로 이번 방문을 격려해주신 전인호 국제사업실장님을 비롯해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도움을 준 국제교류팀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바레인 친구들이 월드컵 한국팀 경기가 끝날 때마다 문자와 사진을 보내왔는데 브라질 때문에 더는 못 받아보게 됐다. 그렇다면 다음 연수는... 브라질로?



현지 의료진과 함께 'K하트'를 하며 기념촬영.

환자와의 약속



국제교류팀
최정윤 주임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진료센터에서 해외보험과 수납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과 계약을 맺고 있는 해외 보험사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들이 큰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통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저는 우리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미국인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때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온 60대 여성 환자가 응급실을 통해 우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단명은 신우의 악성 신생물, 이행세포 암종이었습니다. 표적 항암치료를 곧바로 진행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환자들의 치료비는 국제 수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환자는 거액의 치료비 때문에 곧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주저했고 결국 치료 시작 날짜를 일주일 미뤘습니다.

저는 걱정으로 가득 찬 환자의 이야기를 들은 뒤 우선 환자를 진정시켰습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비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때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해 볼게요.” 먼저 환자가 가입한 해외 보험사에 지불보증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의 업무 시간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저녁 9시 30분에서 오전 6시 30분 사이였기 때문에 연락이 더욱 어려웠고, 이들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가 더 늦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환자를 위해 매일 새벽 전화와 이메일로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치료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지불보증서를 기다렸고, 다행히 응급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보험사 측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제때 항암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줘



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오길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저 역시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일이 잘 해결되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질병뿐만 아니라 거액의 치료비를 걱정하던 환자들이 무사히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외국인 환자 도울 수 있어 감사”

국제진료센터에서 일하며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을 믿고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서울아산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호를 끝으로 'Thank U, AMC' 코너를 마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칵테일의 매력에 조주기능사 자격증까지



어린이병원간호팀 김태희 주임



칵테일 만들기를 시작한 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2019년부터 3년 동안 매년 바디프로필을 찍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하지만 운동 기간에는 술을 마실 수 없어서 그렇다면 직접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칵테일 조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조주기능사 자격증까지 따게 됐습니다.

조주기능사 자격증이 무엇인지

조주기능사 자격증이란, 술·커피·음료·차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칵테일을 조주하고 호텔과 외식업체의 주장관리 등을 수행하는 쉽게 말해 바텐더 자격증을 말합니다. 시험은 1년에 4회 실시하는데 양주학개론, 주장관리개론, 기초영어 총 3과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년 이내에 실기시험에도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기 시험에서는 40여 가지의 칵테일 중 랜덤으로 출제되는 3가지를 7분 이내에 만들어야 합니다.

칵테일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은

칵테일은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전통주부터 럼, 데킬라, 진, 위스키, 보드카, 데킬라 등 여러 기주에 각종 리큐르와 음료까지 필요합니다. 칵테일을 만들 때는 눈대중으로 해도 되지만 더욱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레시피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기물이라고 합니다. 셰이커, 믹스글라스, 믹싱틴, 스트레이너, 지거, 바스폰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계량할 때 사용하는 지거, 내용물들을 흔들어 섞기 위한 셰이커, 칵테일을 젓거나 플로팅기법을 할 때 사용하는 바스폰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은

B-52를 가장 좋아합니다. 리큐르 베이스에, 폭격기 이름을 딴 슈터 계열의 칵테일입니다. 세리잔에 갈루아 1/3part, 베일리스 1/3part, 그랑마니에 1/3part를 차례로 플로팅 해주면 완성인데요, 여기에 바카디 151을 살짝 올리면 불쇼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친구들에게 만들 어줄 때 잔재주를 자랑하기 좋습니다.(웃음)

앞으로 계획은

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취미이고, 무언가에 빠지면 깊게 몰입하는 편이거든요. 우선은 지금 배우고 있는 프리다이빙을 원하는 레벨의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웨이트와 크로스핏도 즐겨하는 만큼 조금 더 공부해서 생체지도자 자격증을 따보고 싶어요. 세 상엔 배우고 즐길 게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늘 설레고 행복합니다!



※ 병원보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나의 취미생활' 코너를 운영합니다. 취미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한 고양이 '살구'

암병원간호2팀 이보라 주임



올해로 3살이 된 수컷 고양이 '살구'를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강아지를 더 좋아했는데 새침하고 귀여운 고양이의 매력에 빠져서 고양이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2020년 4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양이를 키우기를 결심하고 살구를 데려왔습니다.

살구라는 이름은 새끼 때 살구색을 띠는 털색 때문에 지은 이름이에요. 살구가 점점 커갈수록 털색이 짙어지면서 지금은 인절미 색깔의 고양이 되었습니다. 동그란 눈과 머리에 있는 삼각형 털무늬가 살구의 매력 포인트예요. 얼굴은 작는데 몸집은 커서 사진만 보다가 실물을 보면 친구들이 놀라곤 해요. 그래서 별명이 '호랑이 살구'랍니다. 몸무게가 6.9kg나 되어서 한번 안으려면 두 손 가득 '영차' 하고 안아야 해요. 그리고 가끔씩 가슴이나 배 위에 올라오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든답니다. ㅎㅎ

살구는 흔히 말하는 '개냥이'예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낯을 가리지 않고 먼저 다가와서 몸을 비비며 인사를 하는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간식을 준다고 하면 제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말았을 때 코를 갖다 대는 애교를 부리기도 해요! 똑똑한 살구는 배변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가끔씩 헤어볼을 토할 때도 아무데나 토하지 않고 고양이 화장실 패드에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야옹 하면서 다가와요. 그리고 창문과 미닫이문도 열 줄 알아요.

살구는 1살 때 큰병 치료를 한 후로 한 번도 아픈 적 없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준 고마운 고양이입니다. 집사를 아주 좋아해서 조금만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면 무릎 위에 올라와서 '골골송'을 부르고, 잠자리에 누우면 옆에 와서 잠을 청하는 집사바라기예요. 눈이 오던 날 살구와 옥상에서 눈 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살구가 추울까봐 담요와 목도리로 공풍 싸매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함께 눈을 구경했어요. 살구는 처음 보는 눈이 신기한 듯 가만히 구경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살구가 흑시라도 도망갈까봐 꼭 안고 있었는데, 살구는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랍니다.

살구는 공놀이를 아주 잘합니다. 공을 공중으로 던지면 뛰어 올라서 잡고 공을 굴려주면 다시 제게 공을 굴려주는 패스놀이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제 차에서 나는 소리를 알아서 주차 후 차를 잠그는 '뽕'소리가 나면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집이 4층인데 3층에 올라가면 야옹~ 하고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살구야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행복한 고양이로 오래오래 곁에 있어줘♥

※ 병원보는 직원들의 반려동물을 소개하는 '마이펫' 코너를 운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달의 SNS 콘텐츠

리얼스토리

한국에서 되찾은 미소

- 중심거대세포육아종 치료 플란지 편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청년 플란지는 입 안에 생긴 15cm 이상의 거대 종양 때문에 지난 10여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울아산병원을 찾았고, 이곳에서 중심거대세포육아종을 제거하고 재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플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암행의사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재건술은 꼭 필요할까요?



출연 : 성형외과 한현호 조교수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이라는 큰 산을 마주하기 때문에 유방 재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형외과 한현호 조교수가 유방 재건은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즉시 재건과 지연 재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상더하기

장기이식 편



서울아산병원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토크쇼 '상상더하기'. 이번 편에서는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부교수와 노년내과 장일영 조교수가 신·췌장이식 외과 신성 부교수와 함께 장기이식의 발전과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병원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우리 병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SNS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영어논문 레벨업

영어논문 레벨업을 돕는 임상의학연구소 영어논문교정지원부



임상의학연구소
임준서 특수전문학자



지난 2년 동안 '영어논문 레벨업'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 연구자들에게 영어논문 작성 관련 팁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되었다. 연구 논문의 서론(2021년 2월), 결론(2021년 3월), 제목(2021년 12월), 그리고 초록(2022년 4월) 작성법에 대해 다뤘으며 한국인 연구자들이 자주 틀리는 영어표현법(2021년 1, 4, 6, 8, 10, 11월, 2022년 1, 5월)도 소개했다. 또한 동료심사 답변 작성 관련 팁도 다뤘으며(2022년 2, 3월), 특히 커버레터의 중요성과 작성법에 대해 4회(2022년 7~10월)에 걸쳐 기고했으니 논문 작성 시 필요에 따라 찾아보거나 필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논문 작성법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물어오는 사람이 많다. 모든 글쓰기 공부의 왕도는 모범이 되는 글을 많이 읽음으로써 내 안에 좋은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은 평생 유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때는 아무래도 파릇파릇한 학창시절이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할 나이 즈음부터는 좋은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미 내 안에 잡힌 좋지 않은 틀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또한 연구마다 효과적인 논리전개나 단어선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원리만 숙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병원 연구자들의 논문 작성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원은 영문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 나름대로 잘 썼다 생각한 글이 어떻게 교정되는지를 보면 내 안의 좋지 않은 틀이 부각되고 개선 방향이 명확히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이 단지 영문법적으로 '덜 틀린' 원고를 얻기 위해 영문교정을 맡기지만, 계속해서 글을 쓰고 교정 받는 과정을 반복하면 덜 틀린 글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더 좋은'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또한 단어나 문장수준의 교정을 넘어 글 전체 흐름의 조연이나 커버레터, 동료심사 답변 작성 등 투고 과정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 심화 상담서비스 역시 우리 병원만의 특징점 중 하나이니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모쪼록 우리 부서의 교정서비스를 통해 논문작성의 버거움을 덜 수 있길 바란다.

※ 이번 호를 끝으로 '영어논문레벨업' 코너를 마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서's PICK

읽을 책은 많고, 시간은 없고.

행복의 외침으로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이 열린 풍경. 아무것도 감춘 것 없는 전라의 풍경 속에서, 나는 오직 어리둥절했을 뿐이었다. 참으로 이곳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이곳은 내일의 행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올 곳은 아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행복한 사람. 가득하게, 에누리 없이 시새우며 행복한 사람의 땅. 프로방스는 그리하여 내게는 그토록 낮이 설었다. (행복의 충격 中)

어떤 책들을 지렛대 삼아 한 해의 끝자락을 힘차게 넘겨볼까? 우선 연말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는 책. 그렇다면 술이 빠질 수 없지.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 통과해 온 코로나19 팬데믹이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마음 다지기용 책도 끼워 넣는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새해맛이를 위한 책을 없다면 완벽할 것 같다. 물론 이 책들을 다 읽을 시간은 없겠지만...

영웅보다 몽롱



허은실 | 유투문화사 | 2021
차림새가 초출하든 근사하든, 식탁 위에 이게 올라가면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여성, 작가, 그리고 술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조합에서 나온 서사들에 입꼬리가 올라가고, 때로는 빵 터지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소리 죽여 울 수도 있다. 12인 12색의 술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 중 당신의 취향은?

크리스마스 타일



김금희 | 창비 | 2022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는 표지로 한껏 포근해진 마음에 차갑고 날카로운 눈덩이 같은 첫 문장을 던지며 시작하는 이 책은 "엷히고설키며, 알면서도 속절없이 만들어내는 차가운 눈발 같은 사랑은 크리스마스로 하여금 방법을 부리게 하여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준다..."는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차가움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



페스트
알베르 카뮈 | 문학동네 | 2021



회복력 시대
제러미 리프킨 | 민음사 | 2022



행복의 충격
김화영 | 문학동네 | 2012

※ 자료 제공 : 의학도서관 박소영 유닛 매니저

※ '사서's PICK' 코너는 특정 테마를 주제로 의학도서관 사서들이 추천하는 책을 공유합니다. 전문가의 시의성 있는 책 소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소개된 책은 의학도서관 장서 또는 전자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MC 스케치

병원 속 겨울 광장



치과 이지호 부교수

이지호 부교수는 구강암과 턱얼굴(악안면) 재건 수술을 하고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다. 이따금 수술칼 대신 붓을 잡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어 주변 풍경을 그리고 있으며, 블로그(blog.naver.com/jeehoman)를 통해 학습활동과 일러스트를 소개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광장을 구성하는 것 사람, 공간, 그리고 빛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수술간호팀 김인서 주임

'마이펫-우리집 막내딸 가을이'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부터 가을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며 '랜선 집사'로서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보에서 또 만나게 되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문은교 선생님, 바쁘실 텐데도 가을이와의 예쁜 일상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가을이와 앞으로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수술간호팀 김선경 주임

'AMC 스케치-오직 한 사람을 위해...' 그림을 잘 감상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수술 현장이 제겐 당연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 한 사람을 위해 정말 많은 수술실 의료진이 노력하고 있음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됐어요. 환자의 치유와 회복만을 위해 온 힘을 쏟는 의료진 모두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 그림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기내시경팀 박현경 직원(선임기능)

남자아이만 셋을 키우다 보니 '나의 취미생활-RC카와 함께 등산하기' 코너 내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요!

외래간호팀 정미란 과장

'AMC IN(人)sight-가느다란 희망을 잇는 수술'을 읽다 보니 제가 1년 차 신규 간호사였을 때 당시 레지던트였던 권준교 교수님과 함께 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존각을 다루는 응급 수술을 집도하며 환자와 동행하는 교수님이 되신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중양내과 이현정 연구코디네이터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청년 플라지카 수술을 잘 받고 귀국했다는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플라지의 수술 전 사진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성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의 협진을 통해 종아리뼈를 이용한 턱뼈 재건 등 어려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마음속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 지난호 정답

제689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AMC IN(人)sight-가느다란 희망을 잇는 수술'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영상의학팀 김미현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당첨자 명단은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